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루마니아

Romania

2023년 4월 28일 | 선임조사역(G2) 황수영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238천 km ² 	인구 19.0백만 명 (2022) 	정치체제 이원집정부제 	대외정책 친미, 친서방 
GDP 3,018억 달러 (2022) 	1인당GDP 15,851달러 (2022) 	통화단위 Leu 	환율(U\$기준) 4.69 (2022) 

- 루마니아 지역은 기원전 1세기 다치아(Dacian) 민족이 제국을 형성하였으며 기원후 105년 로마에 정복당한 후 150년 간 통치되는 등 루마니아인들은 다치안과 로마인의 후예라는 인식이 있음.
- 민족구성은 루마니아계(83%), 헝가리계(6%) 등이고 언어는 루마니아어가 공용어이며 영어, 독일어, 불어, 헝가리어 등이 상용어임. 종교는 9세기 불가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전파된 동방정교회가 81.9%를 차지하며 그 외 프로테스탄트(6.4%)와 로마 카톨릭(4.3%) 등이 있음.
- 루마니아는 1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1918년 12월 트란실바니아 등을 합병하여 국토가 크게 넓어짐. 2차 세계대전 후 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으나, 1989년 12월 장기집권하던 차우세스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체제가 전환됨. 2004년 NATO, 2007년 EU에 각각 가입하였음.
- 2021년 10월 내각 불신임안 통과 이후 2021년 11월 치우카 국방장관이 새 총리에 지명되었으며 국민자유당(PNL)이 사회민주당(PSD) 및 민주헝가리인연합(UDMR)과 연정을 이루어 국정을 운영 중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0. 3. 30 (북한과는 1948. 11. 3)

주요협정 문화협정('92), 이중과세방지협정('94), 항공운송협정('94),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1), 원자력협력협정('04), 경제과학기술협정(개정, '06), 투자증진및보호협정(개정, '08), 사회보장협정('10), 군사비밀정보교환협정('15)

교역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출	505	588	525	철강, 자동차, 합성수지
수입	531	627	788	의류, 사료, 자동차부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 45건, 1,002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6.0	3.8	-3.7	5.9	4.8
소비자물가상승률	4.6	3.8	2.6	5.0	13.8
재정수지/GDP	-2.7	-4.6	-9.6	-6.7	-5.8

자료: IMF

건조한 소비 및 투자 증가 등으로 2021년 5.9%에 이어 2022년에도 4.8% 경제성장

- 루마니아 경제는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3.9%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과 2022년에는 건조한 민간소비, EU펀드 유입 등의 투자 증가로 각각 5.9%, 4.8% 성장하였음.
- 2023년에는 높은 에너지 가격, 금리 상승 추세, 주력 수출시장인 서유럽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2.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IMF).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에 13.8% 상승

-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2022년 소비자물가가 13.8% 상승함에 따라 루마니아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2022년 중 일곱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1.75%에서 7.0%로 인상하였음. 2023년에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IMF, 10.5%).

코로나19 대응 및 2022년 4월 총선 등의 영향으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수입 증가가 둔화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GDP 대비 -9.6%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2021년에도 동일한 추세가 지속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7%를 기록하였음.
- 2022년에는 보건 및 교육 분야를 제외한 공무원의 임금 동결 등으로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하여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5.8% 수준으로 다소 낮아짐.
- 한편, 2021년 6월 EU는 루마니아에 대해 '초과 재정적자 시정조치'(Excessive Deficit Procedure) 권고 사항을 채택하고 2024년까지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낮추도록 권고하였음.
- 2025년까지 시행 예정인 에너지 가격 상한제, 보조금 지급 등으로 2023년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4.5%로 전망되며, 이는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임. 한편, 루마니아의 정부채무는 GDP 대비 48%로 낮은 수준이며 역대 스웨덴(38.3%), 노르웨이(41.4%), 스위스(42.4%) 등과 비슷한 수준임.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 상 수 지	-11,136	-12,184	-12,534	-20,628	-27,978
경상수지/GDP	-4.6	-4.9	-5.0	-7.2	-9.3
상 품 수 지	-18,019	-19,960	-21,676	-27,291	-33,923
상 품 수 출	73,050	70,622	65,859	82,965	90,342
상 품 수 입	91,069	90,582	87,535	110,256	124,265
외 환 보 유 액	36,482	35,565	44,463	41,990	46,129
총 외 채	114,318	122,007	154,320	151,760	146,462
총외채잔액/GDP	46.9	48.6	61.3	53.1	48.5
D.S.R.	20.8	18.4	19.2	17.1	14.5

자료: IMF, EIU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 기록

- 2022년 중 내수 회복,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상품 수입액 증가분(140.1억 달러, 12.7% 증가)이 상품 수출액 증가분(73.8억 달러, 8.9% 증가)을 크게 웃돌아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24.3% 증가한 -339억 달러로 확대되었음. 여기에 본원소득수지 적자 규모가 60.8%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2021년 -206억 달러에서 2022년 -280억 달러로 늘어났음.
- 관광 수입 등으로 서비스수지는 흑자인데 2021년 111억 달러에서 2022년 133억 달러로 19.8% 증가함. 본원소득수지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익 금액 지급 등이 늘어 적자 규모가 확대됨(57.1억 달러→91.9억 달러). 주요 수출품목인 곡물 가격 강세로 상품수지 적자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EU 펀드 유입 등으로 이전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EIU).

상품 수입액 증가 등으로 2022년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3.3개월 분

- 루마니아 외환보유액은 2021년 419.9억 달러에서 2022년 461.3억 달러로 9.9% 증가하였으나, 상품수입액이 2021년 1,102.6억 달러에서 2022년 1,242.7억 달러로 12.7% 증가하여 연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월평균수입액의 3.3개월 분으로 전년도의 3.5개월 분 대비 약간 감소하였음.
-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2022년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선호(risk-on) 현상으로 여타 동유럽 신흥국 통화와 같이 루마니아 레우화가 강세로 전환하였기 때문임. 이러한 레우화 강세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Fitch).

외채상환능력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 하락 등 외채상환능력 전년 대비 개선

- 총외채 잔액이 2021년 1,517.6억 달러에서 2022년 1,464.6억 달러로 3.5% 감소하고, 총수출은 2021년 1,236.5억 달러에서 2022년 1,363.9억 달러로 10.3% 증가함에 따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21년 122.7%에서 2022년 107.4%로 하락하였고 D.S.R.도 2021년 17.1%에서 2022년 14.5%로 개선되었음.
- 또한, GDP가 2021년 2,856억 달러에서 2022년 3,018억 달러로 5.7%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도 2021년 53.1%에서 2022년 48.5%로 하락하는 등 외채상환능력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보여짐. 다만,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은 2021년 99.9%에서 2022년 90.2%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임.

구조적취약성

경상수지 적자 지속으로 레우화 가치 하락 우려

- 루마니아 레우화 가치는 경상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2016년 하반기 이후 장기적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1년 3분기 이후로는 유로당 4.93~4.95레우에서 횡보하는 양상임. 이는 루마니아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의한 것으로 보여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으로 루마니아의 상품수지 적자가 급증하였고,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6.8%까지 치솟아 실질금리가 -10% 수준까지 하락하여 루마니아 레우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시킴.
- 루마니아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이 없을 경우 레우화 가치는 유로당 5.40레우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여짐. 최근 유럽지역의 에너지 가격 안정세를 감안할 때 에너지 수입을 위한 외화수요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레우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됨(Fitch).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되기 이전에는 레우화 가치 하락 추세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루마니아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2023~27년 중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EIU).
- 유럽중앙은행(ECB)의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중앙은행은 현재 정책금리 동결 등 상대적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레우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함.

노동력 유출에 따른 숙련 근로자 부족 심화 우려

- 루마니아의 노동자들이 높은 소득 및 다양한 고용 기회를 찾아 서유럽 등지로 이주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루마니아의 숙련 근로자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2007년 1월 EU 가입 이후 루마니아는 고급인력과 숙련 노동력이 높은 임금을 찾아 서유럽으로 유출되어 경제발전엔 걸림돌이 되고 있음. 실제로 루마니아의 인구는 국외 이주 등으로 최근 10년 동안에 4.7% 감소하였음(2012년 2,006만 명 → 2021년 1,912만 명).
- 루마니아 인구는 1990년 공산 정권 붕괴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0년 2,320만 명에서 2010년 2,124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1,904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세계은행에 따르면 2050년에는 1,594만 명으로 감소하여 2010년 대비 무려 21.5% 감소할 전망이다.
- 루마니아의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향후 연금 및 건강보험 재원조달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Fitch는 2050년까지 루마니아의 생산가능 인구 1/3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성장잠재력

유럽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시현

- 루마니아는 2011년 이후 2021년까지 평균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유로존(1.21%) 및 EU 27개국(1.54%)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여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임(헝가리 2.8%, 체코 1.9%, 슬로바키아 2.1%).
- 루마니아 가계부채의 경우도 2021년 말 기준 GDP 대비 15.2%로 낮은 편이며(헝가리 21.0%, 체코 34.4%), 주변 국가들에 비해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어서 장기적으로 추가 성장 잠재력이 있음.

2021년 중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 크게 증가

- 루마니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교육받은 노동력 등으로 EU 내에서 매력적인 FDI 대상국으로 알려져 있음. 루마니아로의 FDI 유입액은 2008년 136.7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이후 2008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입액을 보이다가 2021년에 86.1억 달러로 반등하는 양상임.
- 열악한 교통 인프라, 정치 불안정, 예측 불가능한 정부정책, 행정업무 처리 지연 등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FDI 유입액(억 달러) : 54.2('17) → 62.2('18) → 57.9('19) → 34.3('20) → 86.1('21)

정책성과

정부 정책효율성 지수는 하락 추세

- 루마니아 정부의 정책효율성 지수*는 2019년 -0.19, 2020년 -0.26, 2021년 -0.13의 저조한 수준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비효율이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의 세부 항목인 'Government Effectiveness'의 추정치로 -1.5~+1.5 구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호한 거버넌스 수준을 나타냄.
- 루마니아는 2017~19년 도입한 비민주적 사법개혁이 EU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EU의 모니터링 대상이 있음.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11월 루마니아가 EU의 협력·검증 메커니즘(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의 권고사항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동 조치의 적용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였음.

교통 인프라 및 원전 등 대규모 투자전략 발표

- 루마니아 교통부는 2021년 12월 "2020~30 교통 인프라 개발 계획(안)"을 통해 도로(342억 유로), 철도(206억 유로), 지하철(107억 유로), 해상인프라(45억 유로), 공항(28억 유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음. 투자재원은 대부분 EU 기금임.
- 루마니아는 천연가스와 원전 등을 국가 에너지 믹스로 활용할 계획이며, 치우카 총리는 2022년 2월 체르나보더 원전을 방문하고 국영 원자력전력공사(SNN)의 원전 프로젝트(3~4호기 발전소 신규 건설 등)를 활용하여 에너지 안보 및 친환경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정치동향

2021년 11월 연정을 구성하였으나 정당 간 견해 차이로 정치적 불안요소 잠재

- 여당인 중도우파 국민자유당(PNL)은 2020년 12월 총선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관리 부실 등으로 25%의 득표율에 그쳐 사회민주당(PSD)의 29%에 뒤졌으나, 루마니아구국당(USR+) 등과 함께 국민자유당 소속 시투(Citu) 총리 주도의 연립정부를 출범시켰음.
- 그러나, 2021년 9월 시투 총리가 루마니아구국당 소속의 법무장관을 해임하는 등 연정 내 갈등이 불거지자, 루마니아구국당이 총리의 독선적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야당인 사회민주당이 발의한 불신임안을 찬성함으로써 2021년 10월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어 정국 혼란이 심화되었음.
- 2021년 11월 국민자유당은 사회민주당 및 민주형가리인연합(UDMR)과 연정을 이루는 데 합의하고, 국민자유당 소속의 니콜라에 치우카(Nicolae Ciuca) 국방부 장관을 새 총리로 지명하였음. 국민자유당은 경제·법무·에너지·내무부 장관 등을, 사회민주당은 농업·국방·교통부 장관을 맡고 있음.
- 중도우파인 국민자유당과 과거 국민자유당의 정적이었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연정은 사법개혁 등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이로 분열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불안요소로 남아 있음.

차기 총선 및 대선은 2024년 말에 실시될 예정

- 총선 및 대선 준비 기간 중 정치적 불안정이 나타날 위험이 있으며, 비록 가능성은 낮으나 조기 총선 및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여론조사 결과로는 사회민주당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지지율 분포는 사회민주당이 35%, 국민자유당이 22%, 루마니아통일연합(AUR) 15%, 루마니아구국당 9% 순서임.
- 루마니아의 효율적인 정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질 낮은 관료주의, 사회에 만연한 부패, 정당 간의 갈등관계 등이 해소되어야 하며, 현재 연정을 이루고 있는 국민자유당과 사회민주당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에너지 위기와 안보위협임(EIU).
- 안보위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표면화되었음. 에너지 위기는 2022년 10월 에너지 및 식품 가격 폭등으로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에 참여하면서 본격화 되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및 식품 가격 폭등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사회적 소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사회동향

실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 루마니아의 실업률은 2016년 7.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9년 4.9%로 하락한 이후 2020년 6.1%로 상승하였다가 2021년과 2022년에 다시 5.6%로 하락하는 등 최근들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음.

정치적·시민적 자유 및 민주주의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

- 루마니아는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 증진 등의 활동을 영위하는 국제 민간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평가하는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 2023)에서 '자유' 등급으로 분류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세계자유지수에서 루마니아의 자유도는 100점 만점에 83점("Free" 등급)으로 조사대상 국가 중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수준(0~100)에서도 중위권인 57점을 받았음.

EU 내 최하위 수준의 부패인식지수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

- 2022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평가한 루마니아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는 2017년 59위에서 2019년 70위로 하락한 이후, 2021년에 66위(평가대상 180개국), 2022년에 63위로 소폭 상승함. EU 내에서는 2022년 기준 불가리아(72위)와 헝가리(77위)를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으로, 부패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있음.
- 한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루마니아 반부패청장으로 재임한 로라 코드루타 코베시는 임기 중 전·현직 장관 14명을 기소하였고, 상·하원을 합쳐 국회의원 53명을 기소한 바 있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중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는 2022년 12월 발간한 전 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 보고서에서 ESG 요소가 루마니아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함. 환경 영향은 중립적(neutral-to-low), 사회 영향은 다소 부정적(moderately negative), 지배구조 영향도 중립적으로 평가되었음.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분류함. 2022년 12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 대상 144개국 중 1등급은 12개국(한국 등), 2등급은 30개국(미국 등), 3등급은 36개국(일본, 중국 등), 4등급은 44개국(베트남, 인도 등), 5등급은 22개국(이라크, 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 **(환경)** 탄소전환 및 기후 리스크와 같은 각종 환경위험에 노출된 정도가 대체로 낮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경(Environment) 영향을 '중립적'(2등급)으로 평가함.
- **(사회)** 두뇌 유출(brain drain) 및 인구 감소, EU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 서비스 접근성, 중간 정도의 교육 성과 등을 감안하여 사회(Social) 영향을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함.
- **(지배구조)** EU 내 여타 국가 대비 낮은 제도 및 거버넌스 수준, 취약한 법치주의, 부패 만연, 높은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을 '중립적'(2등급)으로 평가함.

국제관계

2007년 EU 가입 이후 유럽, 미국 등 서방과의 협력 강화

- 루마니아는 2007년 1월 EU에 가입하였으나 부정부패 만연, 사법제도 취약, 인권분야 개선 필요 등으로 EU의 협력·검증 메커니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점검을 받았음. 2021년 3월 루마니아 의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등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긍정적 평가결과를 내놓아 협력·검증 메커니즘 모니터링이 2022년 종료되었음.
- 2021년 9월 EU 집행위원장이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요하니스 대통령 및 시투 총리와 각각 면담하고 루마니아의 '경제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을 승인하였음. 루마니아 정부는 동 계획으로 2021~26년 동안 EU로부터 총 292억 유로(보조금 143억 유로, 대출 149억 유로)를 지원받을 예정임.
- 루마니아는 EU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014년 러시아의 크림(Крым) 반도 점령 당시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자국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국 및 NATO와 관계를 강화하였고, 2016년 3월 미국은 루마니아 남부 데베셀루 공군기지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설치함.
- 루마니아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군대를 집결한 이후 2022년 1월 프랑스와 미국은 루마니아에 NATO군 주둔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고, 루마니아 대통령도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자 NATO 회원국 정상들은 2022년 3월 24일 회의를 열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에 전투부대를 배치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접국인 몰도바에서 친러시아계 분리독립 운동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분리독립 운동이 일어날 경우 루마니아는 민족, 언어, 문화가 유사한 몰도바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난민 지원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됨(EIU).

셴겐 조약 가입 추진으로 역내 교류협력 강화 도모

- 루마니아는 2007년 EU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셴겐 조약(Schengen Agreement)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조약은 EU 회원국 간 국경 검문·검색 및 여권 검사를 면제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하는 협약으로, 동 조약 가입은 루마니아의 역내 관광객 유치 및 투자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셴겐 조약 가입을 위해서는 EU 회원국 전체의 찬성을 얻어야 하나, 2011년 6월 EU 사법·내무위원회에서 사법개혁 부진, 부패 및 조직범죄 만연 등을 이유로 프랑스, 독일 등 6개국이 반대하여 가입이 무산됨.
- 2022년 12월에도 EU 집행위원회의 우호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EU 사법·내무위원회에서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가 루마니아의 조직 범죄 및 불법 이민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대하여 가입이 재차 무산되었음.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금년 중에는 셴겐 지역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EIU).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비율은 2022년 9월 말 기준 0.09%로 비교적 낮은 수준

- 2022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루마니아 앞 여신 원리금 잔액은 8억 8천만 달러(단기 5억 550만 달러, 중장기 3억 7,454만 달러)이며, 이 중 연체액은 80만 달러(단기 50만 달러, 중장기 30만 달러)로 전체 잔액의 0.09%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2020년 9월 말(0.16%) 및 2021년 9월 말(0.19%) 보다 개선되었음.

* 연체비율: 0.31%(‘19.9월) → 0.16%(‘20.9월) → 0.19%(‘21.9월) → 0.09%(‘22.9월)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23.01)	3등급(2022.01)
Moody's	Baa3 (2021.10)	Baa3 (2020.04)
Fitch	BBB- (2023.03)	BBB- (2021.10)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투자적격 등급을 부여

- Moody's, Fitch 등 국제신용평가사는 중기적 성장 잠재력,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소비자물가 상승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하여 루마니아에 대해 종전 평가등급을 유지하고 투자적격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OECD도 2023년 1월 루마니아에 대해 기존의 3등급을 유지함.

- 루마니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9%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 등 내수 호조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9% 및 4.8%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021년 -6.7%에서 2022년 -5.8%로 축소되었으나 적자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도 GDP 대비 2021년 -7.2%에서 2022년 -9.3%로 확대되었음.
- 2021년 10월 내각 불신임안 통과 이후 2021년 11월 니콜라에 치우카 국방장관이 새 총리에 지명되었고, 여당인 국민자유당(PNL)은 사회민주당(PSD) 및 민주헝가리인연합(UMDR)과 연정을 이루어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법개혁 등 정치적 견해 차이로 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음.
-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지속, 외환보유액 대비 높은 단기외채 비율, 고급인력 유출 및 인구 감소, 정책 불확실성,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루마니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임.